

성윤모 장관 "에너지 전환, 혁신성장 동력으로"

기사입력 2018.10.05 14:32:07 | 최종수정 2018.10.05 14:32:07 | 전지성 기자 | jjs@ekn.kr

- '에너지신산업 다이얼로그' 개최

- 한전 사장·SKT 사장·GE 아태지역 총괄 CEO 등 참가

- "에너지전환은 전력 믹스를 넘어 에너지 믹스 전환, 수요혁신 등 에너지 전반의 혁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 전환은 혁신성장 동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성 장관이 좌장을 맡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박정호 SKT 사장, 바우터 반 버쉬 GE 아태지역 총괄 CEO 등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들이 소개됐다.

성 장관은 환영사에서 "에너지전환은 전력 믹스를 넘어선 에너지 믹스의 전환과 수요혁신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혁신"이라며 "에너지전환이 가진 혁신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재생에너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재생에너지 전력의 저장-중개-전환 과정에서의 신산업·서비스 창출 △ 소비 구조 혁신을 통한 거시적·산업적 효과 등 에너지전환이 가진 3가지 혁신성장 동력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5%에서 2050년에는 66%로 확대되고, 고용 비중도 현재 24%에서 58%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병행,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강화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는 해외 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가상발전소(VPP)나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메탄으로 전환하는 P2G 기술 등의 분야는 제도 설계,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핵심 원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스마트에너지공장과 제로에너지빌딩 등 수요측면의 에너지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적으로 '에너지 이용문화 개선 → 관련 투자 확대 →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신산업 창출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업대표들이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분산화 방향(한전), 디지털 혁신의 모범 국가 사례(GE),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전환방안(ABB),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전망(SKT, 인코어드), 브루클린 마이크로 그리드 성과(LO3에너지), 자발적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루트에너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기존의 전력 공급자의 역할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화 중"이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 접목으로 에너지산업의 시장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우터 반 버쉬 GE 아태지역 CEO는 "전력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그리드의 효율적인 사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에 기여해 생산성 증대 및 가동중단시간 최소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기업 양측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며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국가 총 소비전력의 획기적 절감,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전문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렌스 오시니 LO3에너지 대표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으로는 전기차, 태양광·풍력 등 분산 에너지원 수용이 어렵다"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데이터를 표준화·수익화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구상을 공개했다."

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업계가 힘을 합쳐 미래 에너지 산업 조성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